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다양한 ICT 관련 사회 현상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빠른 IT보다는 바르고 건전한 IT 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융합 ICT 연구소를 지향합니다.



BARUN ICT News

신뢰할 수 있는 AI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아시아의 협력 제13회 Asia Privacy Bridge Forum (APB Forum) 안내

Insights from Regulatory Advancements in Trustworthy AI, Privacy and AI Governance



2024년 10월 17일과 18일, 연세대학교에서 제13회 Asia Privacy Bridge Forum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 주요국 정부 및 기관, 학계, 민간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비롯한 300여명이 참석하여,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그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및 AI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특히, AI 책임성, 플랫폼 거버넌스,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독특한 문화적, 언어적, 역사적 맥락을 반영한 규제 발전 상황을 공유하고,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둔다.

10월 17일(목) 09:00 ~ 15:00 장소: 연세대학교 연세 · 삼성학술정보관 장기원국제회의실	10월 18일(금) 09:00 ~ 17:00 장소: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Oct 17 (Thursday) 09:00 ~ 15:00 #733, 7th Floor, Chang Ki Won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Yonsei · Samsung Library, Yonsei University	*Oct 18 (Friday) 09:00 ~ 17:00 #B126 Grand Ballroom, Baekyang Hall, The Commons, Yonsei University

이번 포럼은 AI 시대의 데이터 보호와 경쟁법의 교차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Research

2

Report

10

AI Trend

12

AI 혁신 기술의 예측과 미래: 법제도적 제약과의 조응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공지능을 통한 노인 돌봄

양자컴퓨팅과 바이오헬스의 미래

AI 혁신 기술의 예측과 미래: 법제도적 제약과의 조응

박준희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2024 다보스 포럼 토론에서 오픈AI의 공동창업자 샘 올트먼은 전세계가 AI의 기술력이나 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규제와 한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AI가 내린 결론을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가? 그 기본과 한계는 무엇이며, 가치의 결정은 누가 하는가? 이는 AI를 비롯한 혁신적 기술이 아무리 비약적으로 발전하더라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자 근본적 질문이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 기술의 파급력이 전세계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이를 제약하는 제도적 논의와 규범성도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본 연구는 혁신 기술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조사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법제도적 제약을 함께 논의하였다.

미래예측과 Expert Delphi의 활용

전문가 델파이(Expert Delphi) 방법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바람직한 합의 방향을 도출하는 기법이다[1]. 고전적 델파이 기법은 익명성과 통제된 환류, 통계치의 제시, 반복적 절차를 특징으로 한다[2]. 전문가 델파이는 이러한 기본 전제에 더하여 특정한 문제에 대한 예측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직관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설문 을 통한 상호교환과 수정 등 추론의 피드백에 의해 합의에 도달하는 예측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를 통한 미래예측은 인간 고유의 가치판단과 함께 지적 속고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지적 인공물(intellectual artificial)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I, 빅데이터, AR/VR/XR, UAM, 블록체인, 드론 및 로봇,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전문분야로 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방식으로 1차 전문가 델파이를 진행하여 미래의 이슈와 핵심 기술군을 도출하고, 기술군별 세부기술들을 도출하는 2차 델파이 조사를 시행했다. 이는 특히 코로나 시기 큰 어려움을 겪은 관광산업에 적용될 경우 유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혁신기술을 도출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디지털 혁신 기술

1,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총 10개 기술군과 27개의 세부기술들이 도출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기술군으로는 생성형 AI 및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현장정보 및 사전정보 제공 기술, 실감 경험을 확대하여 주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 기술[3], 모빌리티 및 이동연계 서비스 기술, 무인화·자동화 또는 로보틱스 기술, 거래효율화 결제 기술, 플랫폼 기반 경영, 빅데이터 수집·분석 기술, 안전·방역 및 예측 기술이 전망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생성형 AI 기반 기술군에서 정보추천 기술과 관심분야 맞춤형 정보 제공 기술, 대화형 챗봇 서비스, 통번역 기술, 음성안내 기술, 실시간 정보 제공 기술이 도출되었다. 인터랙티브 기술로는 IoT를 통한 체험강화 장치, 증강/가상현실 등(AR/VR, MR/XR) 실감형 기술,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한 시각적 실감경험 확대 기술이 도출되었다. 이동연계와 관련해서는 UAM이나 자율주행 등의 모빌리티 기술과 MaaS(Mobility as a Service), GIS, 3D 맵 등의 정밀지도 기술, ITS 등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기술이 미래에 유망한 혁신기술로 도출되었다. 또한, UX(User eXperience) 등과 같은 기술을 통해 노인이나 장애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경험과 지원을 위한 기술도 부각될 것이라 전망했다. 인력 감소의 사회적 환경 하에서 자동화 및 로보틱스 기술이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보았다. 거래 효율화를 가져오는 혁신적 결제기술로 핀테크(Fintech) 등 블록체인 기술과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는 OoPay, QR코드 기술은 더욱 편의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혁신기

술은 경영의 고도화 가져올 것이며,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 기반 기술이 보다 발달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서도 질적 고도화가 나타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행동 및 학습 데이터의 활용부문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만큼 방역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전적 예측 기술이 발달하고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감염자 추적시스템, 혼잡도 분석 시스템, 날씨 예측 시스템 등이 제시되었다.

법·제도적 제약

전문가 델파이와 함께 진행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결과, 시장 수용성, 이슈 대응성, 기술 혁신성, 산업 영향력(likert 5점 척도) 기준에서 모두 높게 나타난 기술군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보추천 기술, 생성형 AI 기반 실시간 정보제공 기술, 데이터 분석 고도화 기술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우리의 미래사회에 곧바로 실현될 것인가? 전문가들의 지적은 기술적 실현가능성만이 아닌 제도적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성형 AI의 경우 학습데이터의 부족 및 신뢰성 확보, 데이터 표준화 및 통일성 문제, 편향성 및 책임성, 개인정보침해 및 윤리성 등에 관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맞춤형 정보 추천 기술에서도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의 콜드스타트(Cold Start), 정보편식 현상에 따른 필터버블(Filter bubble), 사용자와 아이템간 상호작용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 등이 존재한다. 실감형 기술 적용을 위해 수집된 생체정보의 이용, 보관에 관한 문제, 가상현실로 구현된 세계의 복제 행위에 대한 기술 및 저작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도심항공편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련 법안들과 충돌 상황에 있으며, 정보, 예약·결제, 서비스의 통합이라 할 수 있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역시 원활한 이동연계 서비스를 위해서는 공급자 간 데이터 공유와 합의, 교통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실증지역에서조차 예약·결제 모빌리티간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동력 대체 및 보안을 위한 자동화 및 로봇 기술에 있어서도 법인격과 노동 가치, 창작물 및 저작권 문제 등은 인간과 로봇의 공존으로 가기까지 여전히 법적 쟁점으로 남아있다.

기술의 개발 및 축진은 국내 제도와 국제적 제약을 동시에 받을 경우 제도간 불합치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진다. 제도적 해결 시점에 따라 기술의 성장속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제도적 변화의 속도는 제도의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기술의 그것보다 더딜 수 밖에 없다. 규범적 차원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기술군들에 대해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

*이 글은 박준희. (2024). 디지털 혁신 기술의 관광분야에서의 실현 적용 가능성에 관한 미래예측 연구, 미래사회, 15(2), 186-208. 논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1차델파이		2차델파이	
환경	Issue 도출	기술군 도출	세부 유망기술 도출	
	생성형 AI 기반 실시간 정보 제공	[1] 생성형 AI 기반 맞춤형 현장정보 제공	정보추천 기술	관심분야 맞춤형 정보제공 기술
관광 환경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사전정보 제공	[2]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사전정보 제공 기술	대화형 챗봇 서비스	통번역 기술
	오감 경험의 확대	[3] 실감경험 확대 인터랙티브 기술	음성안내 기술	실시간 정보제공 기술
이동편의 개선	이동편의 개선	[4] 모빌리티 기술 및 이동연계 서비스	IoT 연계 체편경과 장치	AR/VR/MR/XR 등 실감형 기술
	취약계층 지원	[5] 취약계층 지원 및 경험확대 서비스	조명기술	디지털 사이니지
사회적 환경	노동인구감소 및 인력지원	[6] 무인화, 로봇틱스 기술	모빌리티 기술(UAM, 자율주행 등)	MaaS(Mobility as a Service)
	거리 효율화	[7] 거레효율화를 위한 혁신 결제기술	정밀지도 기술(GIS, 3D맵 등)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기술(TTS 등)
기술적 환경	플랫폼 기반 경영	[8] 플랫폼 기반 경영고도화	취약계층 지원 기술	UX(User eXperience) 기술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고도화	[9] 대규모 정보수집, 분석 고도화 기술	서비스형 로봇	무인화/자동화 기술
생태적 환경	(포스트 코로나) 안전 강화	[10] 실시간 안전을 위한 환경예측, 분석 기술	분류제인 기술(인테리, 디지털 여권 등)	간편결제 기술(OoPay, QR코드 등)
			ERP 등 경영기술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술
			데이터 수집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	방역 기술
				혼잡도 기술
				날씨예측 기술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도출된 디지털 혁신 기술>

[1] 남궁근 (2021). 정책학, 법문사.

[2] Rowe, G., & Wright, G. (1999). The Delphi technique as a forecasting tool: issues and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15(4), 353-375.

[3] 인터랙티브(Interactive)란 상호활동적인, 쌍방향의 의미를 지니며 인간과 기술의 만남 또는 융합의 단계를 표현한다.

AI 워싱(AI washing)의 폐해와 규제 현황

조신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AI 워싱(AI washing)’ 정의와 사례

기업이 자사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태를 가리키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말은 1990년대부터 널리 쓰여 왔다. 그린워싱은 ESG 활성화와 더불어 ‘ESG 워싱’으로 확장되어, 많은 기업이 ESG 경영에 앞장서는 것처럼 거짓 홍보하고 있으며 금융 기업들도 기존 금융 상품에 ESG 요소를 얹게 덧칠해 ESG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제 이들은 AI 열풍을 불쏘시개 삼아 ‘AI 워싱’에 몰두하고 있다.

AI 워싱은 기업이 자사 제품 및 운영에 인공지능(AI)을 사용한다고 과장하거나 허위로 주장하여 실제보다 더 혁신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동을 뜻한다. AI 워싱의 유형은 다양하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순한 자동화 기능에 "AI-Powered" 같은 모호한 표현을 붙여 과장 광고를 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는 구식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머신 러닝, 딥러닝 같은 AI 기능을 활용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형 AI 프로젝트가 겉으로는 전적으로 AI에 의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사례도 있으며, 이 또한 AI 워싱의 범주에 속한다.

워싱턴포스트의 지난 4월 기사는 오렐비 칫솔을 AI 워싱의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다. 가격이 400달러인 이 칫솔은 “AI 위치 탐지(AI Position Detection),” “AI를 탑재한 3D 치아 탐색 기능(3D Teeth Tracking with AI) 등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이 칫솔에 정확히 어떤 AI 기능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회사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객이 필요한 물건을 집어 들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시스템으로 화제가 된 아마존 고(Amazon Go)도 AI 워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마존은 아마존 고가 컴퓨터 비전, 머신 러닝 등 AI로 운영되는, 계산대와 점원이 없는 매장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최근 아마존이 무인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인도에서 직원 1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아마존도 이 직원들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이 직원들이 영상을 검토하지는 않았으며 매장 44곳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한다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 주문의 약 3/4을 확인하고 에러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AI 소프트웨어 학습을 위해 인간의 역할은 필요하다. 그러나 AI만으로 모든 게 깔끔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홍보된 시스템 뒤에 사실은 많은 직원들이 달려붙어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속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AI 워싱이 원인과 폐해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워싱은 초조함의 산물이다. 친환경이나 ESG 경영, AI 혁신은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기업으로부터 기대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예컨대 소비자들은 AI 기능을 탑재한 혁신 제품에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 투자자들 또한 AI 역량을 갖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다. 한 서베이에 따르면, 85%의 투자자들이 신속한 AI 도입이 기업 가치에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AI가 포함되었다는 인식만 있어도 신규 투자, 신규 비즈니스,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AI 시대를 맞아 뭔가 해야지 하는 강박감과 초조함이 들긴 하지만 AI 역량이 하루 아침에 쌓일 수는 없는 법. 이 와중에 경쟁 기업이 AI 모델을 구축했다거나 AI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더욱 조바심이 나고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정이 들게 마련이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무늬만 AI’인 제품 출시와 요란한 광고뿐이다.

당분간 AI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텐데, AI 역량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AI 워싱에 대한 유혹도 커질 것이다. 그러면 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도 AI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AI 워싱의 위험을 간과하기 십상이다.

뛰어난 AI 역량을 가진 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AI 워싱을 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패키지가 대표적인 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뛰어난 운전 보조장치를 개발했고, 이를 발전시켜 대부분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이 크게 필요 없을 정도로 자율주행 수준이 높은 FSD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FSD라는 이름과는 달리 이는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며, 테슬라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FSD라는 명칭을 고집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운전 중에 방심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테슬라가 일으킨 자동차 사고가 수백 건에 이르고, 이 중 상당수가 운전자 방심 때문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런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매년, 완전자율주행 차량이 그 해 말이면 나온다는 거짓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환상을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다.

AI 워싱 규제 상황

AI 워싱에 대한 규제는 미국 정부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미 작년 초에 광고에서 AI를 언급할 때 주의할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I 제품 성능을 과장하고 있지 않은지, non-AI 제품과 비교 광고할 때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모든 리스크를 점검하였는지, AI 기능이 정말 사용되고는 있는지 점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FTC는 올 2월, 오토메이터스 AI(Automators AI)라는 회사가 AI를 활용한 온라인 상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거짓 유인했다는 이유로 200만 달러 이상의 벌금과 함께 강제 폐업시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금융시장에서의 AI 워싱 규제에 나섰다. 지난 3월 델피아(Delphia)와 글로벌 프레딕션스(Global Predictions)라는 두 개 투자 자문사에 대해 AI 워싱을 이유로 총 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델피아는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글로벌 프레딕션스는 AI를 활용한 예측을 통해 고객에게 투자 추천을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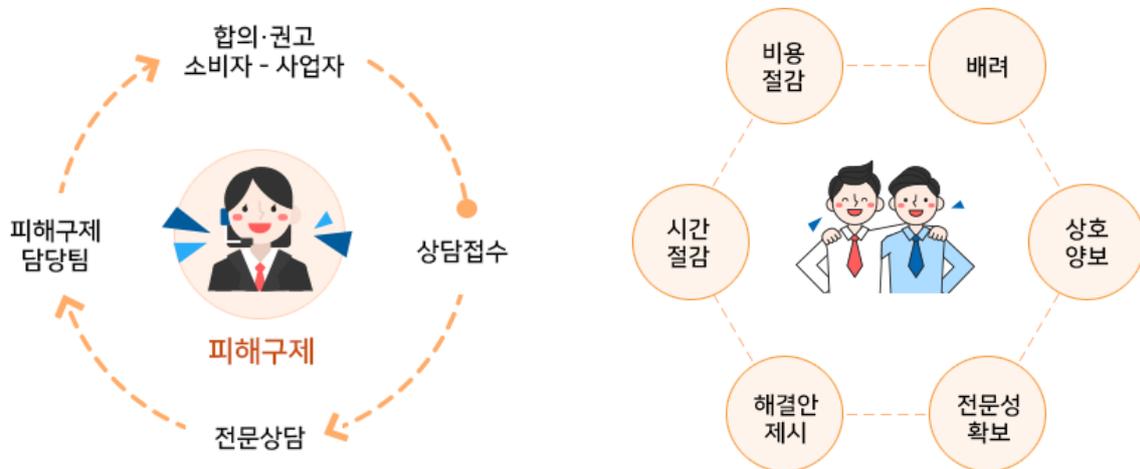
또한 SEC는 지난 6월 AI 워싱을 이유로 준코 다이버시티(Joonko Diversity)라는 기업의 창업자이자 CEO를 법원에 제소했다. 이 회사는 비상장 스타트업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할 때 “AI 기술,” “머신 러닝,” “자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직자와 기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준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기술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기존의 광고 관련 법규를 AI 워싱에 적용하는 것이 눈에 띈다. AI에 관한 광고를 할 때 과장 및 허위 사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한 광고가 AI 기능을 과장했다고 제재를 가했다. 한편, EU는 AI 워싱만을 겨냥한 별도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8월 1일 발효된 ‘EU AI법’에 AI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AI 워싱을 막을 구체적인 법규들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워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기업은 AI 역량 제고와 함께, AI 관련 정보 공개 규정과 및 AI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구성원을 교육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AI의 정의가 모호해서 AI 워싱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정부가 관련 법규에서 AI 정의를 분명히 하고, AI 관련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 🌐

소비자 피해 구제 플랫폼 ‘소비자24’ 개편 해외직구 상담 및 피해 신고 기능 강화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플랫폼인 ‘소비자 24’가 개편되었다. 현재 소비자24에는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로서,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이 제공되며, 직구 관련 상담과 피해 신고를 위한 메뉴가 제공되고 있다. 해외직구 또는 글로벌 e커머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비자24 홈페이지(consumer.go.kr)의 ‘상담 및 피해/분쟁’ 코너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미지 출처 | 소비자 24

Q 검색



☰

서비스안내

상품·안전정보

소비자정보

해외직구정보

상담 및 피해/분쟁

알림소식

해외직구 관련 지식정보, 피해예방정보, 해외리콜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 체크리스트 >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 체크리스트 -

-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 사기의심 사이트

해외직구 뉴스 +

해외직구 관련 상담 +

해외직구 관련 사이트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개인통관부호 발급



✔ 해외직구의 시작은 개인통관부호 발급으로부터

관세청 홈페이지 → 예인의 주요 서비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본인 인증 후 발급 또는 세관 방문 발급 (신분증 필수)

* (주의) 부호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연락처와 해외직구 시 연락처가 다르면 통관 제한

구매품목 점검



✔ 해외직구구매가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한다.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 수수료만 발생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전에 금지 품목 및 제품성분을 확인



✔ 해외제품의 특성 (국내사용 가능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전자제품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등 규격 및 사이즈 확인



[1] "피해 구제 절차." 소비자24, n.d., <https://www.consumer.go.kr/consumer/subIndex/52.do>. 2024년 9월 2일 접속.
[2] "분쟁 조정 안내." 소비자24, n.d., <https://www.consumer.go.kr/consumer/subIndex/53.do>. 2024년 9월 2일 접속.

❖ 박준희 박사님을 환영합니다! ❖



박준희 연구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와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은 Ringen의 간접 접근법(indirect approach)을 통해 장애인 연금의 효과성을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방법으로 비교·평가하여 대상범위와 수급수준의 확대를 제안하였고, 박사학위 논문은 인권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관점에서 고독사 예방 법률과 조례를 대상으로 확산의 요인과 기제, 제도화 수준의 변화를 연계하여 실증분석한 연구로서 ‘정책 역확산(Reverse-Diffusion of Policy)’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성립을 입증하였습니다.

박준희 연구교수는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장례연금제도를 제안한 연구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23년 한국정책학회에서 정책 역확산의 성립에 관한 연구로 우수논문상(Best Paper Award)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24년 한국행정학회의 대표발표자로 선정되어 미국행정학회(ASPA)에서 ‘A Study on Reverse-Diffusion of Policy: New Conceptualization Using Survival Analysis Models and Time Flow’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박준희 연구교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범죄예방 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과 부패 및 형사법 제도들을 연구하였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디지털 혁신 기술이 문화관광산업에 활용될 가능성과 미래를 예측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와 수원대학교 객원교수직을 역임했습니다. 게재한 논문으로는 <범죄 빅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과 프라이버시 염려-정부신뢰의 매개·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공공조직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윤리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 및 조직문화의 조절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독사 및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정책적 제언: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 책무성의 관점에서>, <디지털 혁신 기술의 관광분야에서의 실현·적용 가능성에 관한 미래예측 연구> 등이 있습니다.

현재 박준희 연구교수는 AI 규제 정책의 확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AI를 활용한 서비스의 효과성 평가와 AI 거버넌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환호 박사, 2024 ISACA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활동가상' 수상



한국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 정기총회가 7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바른ICT연구소의 연구교수 노환호 박사가 '올해의 활동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노환호 박사는 ISACA Academy에서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이번 상을 받게 되었다. 그는 협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정보시스템 감사와 통제 분야에서의 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번 정기총회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ISACA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노 박사는 수상 소감에서 "협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정보시스템 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ISACA는 전 세계적으로 정보시스템 감사, 보안,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글로벌 협회로, 이번 수상은 노 박사의 전문성과 헌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환호 박사의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그의 앞날에 더욱 큰 발전과 성취가 있기를 기대한다. 🌟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공지능을 통한 노인 돌봄

장순범 인턴

연세대학교 바룬ICT연구소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고령화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다수의 선진국이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세계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며, 이는 점진적이고 대부분 되돌릴 수 없는 추세다.

세계는 이제 인구 고령화 문제를 당면 과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유엔 인구 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이 발간한 2022년 세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 중 노인 비율은 2022년 9.8%에서 2070년 20.1%로 1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

그렇기에 노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개발은 주요한 과제이다. 노인 돌봄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생활을 돕는 서비스를 말하며,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하여 건강관리, 사회활동 및 정서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노인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정 내 간호 노동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 복지를 확대하여 노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감소시킨다. 또한, 노인의 정신적 웰빙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역할을 한다[2].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제3세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세계적으로 비대면 노인 돌봄 제품 및 서비스에서 확대되고 있다[3].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노년층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은 사회적 고립이나 건강 문제 등 일상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자층을 위해 AI를 활용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노인들의 고독을 해결하는 동반자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겪는 고독과 외로움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심리적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노인들이 겪는 고독과 외로움은 우울증,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이는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더불어 이러한 영향은 신체 건강 문제도 초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기술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동반자 로봇은 노인들의 고독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노년층을 위해 개발된 주요 동반자 로봇, 엘리큐를 소개한다.

소셜 로봇 엘리큐(ElliQ)

엘리큐는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소셜 로봇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을 통해 노인들의 고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엘리큐의 주요 기능 및 역할

• 정서적 지원 및 대화

인공지능을 통해 노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기분을 이해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한다.

• 일정 관리 및 활동 권장

노인들의 일정을 관리하고, 다양한 활동을 권장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엘리큐는 약속이나 약 복용 시간 등을 알려주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 맞춤형 경험 제공

사용자의 선호와 필요에 맞춘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개인화된 접근 방식으로 노인들이 자신의 필요와 관심사에 맞는 정보를 얻고, 더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춰 대화를 나누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엘리큐는 단순한 기계 이상의 역할을 하며, 진정한 동반자로서 기능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혁신은 노인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며,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그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를 희망한다. 🤖

[1] United Nations. (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 조우홍. (2017). 고령사회의 노인 학대 예방과 정책적 대안 방안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8권 6호, 1299-1310.

[3] 김정근. (2021).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미국의 AI/로봇을 활용한 노인 돌봄 사례와 이슈. 국제사회보장리뷰, Vol. 16, 16~26.

양자컴퓨팅과 바이오헬스의 미래: 연세대 포럼에서 혁신적 융합 가능성 모색

이예빈 인턴
연세대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지난 8월 6일, ‘제8회 양자컴퓨터와 바이오헬스 포럼’이 연세대 국제캠퍼스 언더우드 기념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양자컴퓨터와 바이오헬스 포럼’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되어, 국내 최초로 양자컴퓨터를 도입하게 될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인천 송도 지역에 양자컴퓨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양자컴퓨터와 각 산업의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총 다섯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에는 ▲김정상 교수(듀크 대학교, IonQ 공동창업자) ▲김기환 교수(칭화대학교) ▲최준희 교수(스탠퍼드 대학교) ▲김나영 교수(위털루 대학교) ▲박채연 교수(연세 대학교)가 초청 연사로 발표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김정상 교수는 ‘이온 큐비트를 활용한 실용적 양자 컴퓨팅’을 주제로, 아이온 트랩 시스템의 과거와 현재를 설명했다. 김정상 교수는 “양자컴퓨터의 실용적인 운영 사례를 개발해야 한다”며 “에러 코렉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에러를 완화하는 방법처럼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자원을 활용해 쓸모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환 교수는 ‘양자 이점을 위한 이온트랩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광자를 활용한 이온트랩 시스템의 원리와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양자컴퓨터로는 슈퍼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하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컴퓨터보단 시스템에 가까운 상태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할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자컴퓨터 개발 영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생겨날 가능성이 큰 영역”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이종수 국제캠퍼스 부총장 ▲이순철 양자기술단장(한국연구재단) ▲김재완 원장(연세대 양자정보기술연구원)이 환영사 및 축사를 맡아 정보 기술과 첨단 바이오 분야의 협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첫걸음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양자컴퓨터의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는 기존의 기술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양자컴퓨터 분야의 개발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



△ 지난 6일 열린 ‘제8회 양자컴퓨터와 바이오헬스 포럼’에서 김정상 교수(듀크 대학교)가 이온 큐비트와 양자컴퓨터에 관한 세션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소셜 미디어와 주의 집중력: 인터넷 중독과 짧아진 집중력의 연관성

Madeleine FRUMAN

University of California Education Abroad Program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최근 나는 유난히 바쁜 한 주를 보냈다. 수학 숙제, 그룹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까지, 할 일은 산더미였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매번 결심하고 자리에 앉을 때마다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뉴욕 타임스의 일일 미니 게임을 잠깐 하거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한 번 둘러보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새 한 시간 넘게 스크롤을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중독이며, 디지털 콘텐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력감일 것이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스크린 타임, 집중력, 그리고 도파민 간의 연관성을 조금씩 밝혀내고 있다.

2015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평균 집중 시간이 12초에서 8초로 줄어들었다고 한다[1]. 또 영국에서 500명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코로나 봉쇄 이후 아이들의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84%의 교사들이 답했다[2]. 집중력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는 많지 않지만,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한 변화를 겪고 있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주의력 연구 센터가 영국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자신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빈도를 과소 평가하며", "이전보다 집중력이 짧아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3]. 그렇다면 휴대폰 중독과 집중력 사이에는 어떤 과학적 연관성이 있을까?

도파민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릴 때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이다[4].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는 그 활동이 즐겁다고 판단하고, 반복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킨다. 코카인 같은 약물에 중독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원리다. 이런 약물들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도파민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만든다. 소셜 미디어는 도파민 분비를 유발하는 무한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는 우리가 자주 휴대폰을 확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뇌가 휴대폰에서 오는 지속적인 자극에 익숙해지면, 상대적으로 지루하고 도파민 분비가 적은 활동, 예를 들어 공부나 청소 같은 일에 집중하는 능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독'(실제로는 매우 효과적인 주의산만) 상태가 영구적인 신경학적 변화가 아니며, 개선이 가능하다고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뉴욕 세인트 보나벤처 대학의 주의력, 학습, 기억력 센터 공동 책임자인 아담 브라운 박사에 따르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기기를 멀리해 알림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심리학 교수들이 권장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을 완전히 멀리하는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것, 스크린 타임을 제한하는 것, 휴대폰 화면을 흑백으로 설정하는 것, 알림을 꺼두는 것 등이 있다. 나도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해보려고 노력 중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내 집중력 문제도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1] McSpadden, K. (2015, May 14). You now have a shorter attention span than a goldfish. TIME. <https://time.com/3858309/attention-spans-goldfish/>

[2] Cobham, T. (2023, June 7). Children 'can't focus for more than 10 minutes' after Covid. The Independent. <https://www.independent.co.uk/news/education/primary-children-teachers-pandemic-attention-span-b2352945.html>

[3] King's College London. (2022, February 17). Are attention spans really collapsing? Data shows UK public are worried - but also see benefits from technology. King's College London. <https://www.kcl.ac.uk/news/are-attention-spans-really-collapsing-data-shows-uk-public-are-worried-but-also-see-benefits-from-technology>

[4] Haynes, T. (2018, May 1). Dopamine, Smartphones & You: A battle for your time. Science in the News, Harvard Graduate School of the Arts and Sciences. <https://sitn.hms.harvard.edu/flash/2018/dopamine-smartphones-battle-time/>

AI 워싱: 과장된 AI 활용 주장이 불러온 우려와 대처 방안

Sangeun LEE

Global Student Reporters and Researchers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지난 4월, 미국 아마존의 신선식품 배달 서비스인 아마존 프레시(Amazon Fresh)와 아마존 고(Amazon Go)가 주로 인공지능(AI)으로 운영된다는 회사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1,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보고가 제기됐다. 아마존은 이 보고를 "잘못된 정보"라고 일축하며, 해당 직원들이 시스템 검토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사건은 'AI 워싱'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AI 워싱'은 기업들이 AI 기술의 활용을 과장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치 더 발전된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다[1]. 이는 기업들이 환경 영향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그린워싱'과 유사한 개념으로, 최근 AI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면서 여러 산업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I 워싱은 다양한 산업과 제품에 걸쳐 나타난다. 예를 들어, 냉장고, 주전자, 진공청소기, 온도 조절기와 같은 많은 가전제품이 '스마트' 또는 '지능형'이라고 광고되지만, 실제로는 자율 학습 기능이 없어 '연결된' 제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일부 기업들은 자사 도구가 비디오, 카피 및 콘텐츠 제작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은 여전히 인간의 입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최근 코카콜라는 AI와 공동 개발한 새로운 음료 Y3000을 출시하며 AI 워싱 논란에 휩싸였다[2]. 비평가들은 이 캠페인이 AI의 구체적인 역할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실제 기술 혁신보다는 마케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금융 부문에서도 두 개의 회사가 AI가 투자 전략을 관리한다고 주장하며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기소된 사례도 있다.

AI 워싱은 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AI 기술에 대한 과대광고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발생한다. 기업들은 AI 기능을 미래에 포함할 계획만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AI를 통합한 제품인 것처럼 과장된 광고를 내보낸다. 이 현상은 ChatGPT와 같은 기술의 성공 이후 더욱 심화되었으며, 기업들은 유사한 성과를 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AI는 다양한 기술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이기 때문에 오용되기 쉽다. 명확한 정의와 이해의 부족은 기업들이 'AI'라는 용어를 남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더 혁신적이고 정교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AI 워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에도, 여러 국가는 AI 관련 주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규정을 마련해왔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AI 관련 주장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AI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허위 AI 주장에 대한 경고를 발하며, 기업들에게 AI 관련 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기업들이 AI 기술에 대해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집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AI의 정의를 명확히 설정하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산업 단체들은 AI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기업들이 AI 기능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피하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소비자들에게 AI와 그 기능에 대해 교육하여 AI 워싱의 영향을 줄여야 한다. 정보에 기반한 소비자는 과장된 주장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AI가 제품과 서비스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투명한 관행을 채택해야 한다. 제3자 감사와 같은 책임 조치는 AI 주장의 진실성과 근거를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AI 기술이 정확하게 표현되고, 기술 산업에서 신뢰와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자인과 법률의 융합: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의 창의적 해결책 필요성 증대

Nayeon KIM

Global Student Reporters and Researchers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오늘날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감성과 이성으로 대변되는 두 분야, 디자인과 법률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이 이 두 분야를 밀접하게 연결했기 때문이다. 먼저,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과 사용자 경험(UX)의 부상은 디자인의 역할을 확장시켰으며, 디자이너들에게 감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까지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에 맞춘 서비스를 설계하는 디자인 사고 과정은 단순한 예술적 직관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에 기반을 둔다. 반면, 법률 분야에서는 제도적 경직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급격한 기술 발전을 따라잡기 위해 법적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미디어는 텔레비전,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 국한되었지만, 이제는 소설 미디어, OTT, 빅테크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콘텐츠"의 범위가 확장되고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과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디자인과 법률의 교차점은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탠퍼드 로스쿨은 디자인 사고를 도입해 법률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 "디자인 사고"는 최종 소비자 또는 사용자를 관찰하고 공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주로 기업에서 사회 혁신 프로젝트에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시민 참여 정책 설계 워크숍과 같은 공공 부문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스탠퍼드 로스쿨과 협력한 리걸 디자인 랩(Legal Design Lab)은 '법률 도움말 FAQ 플랫폼', 'Wise Messenger', '법원 법률 도움 웹사이트', 'Flood Proof'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사용자 친화적인 법률 지원 IT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발해왔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사람들이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1].

한편, 디자인은 법률적으로 다루야 할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 중 하나가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기만적인 디자인, 즉 다크 패턴이다. 다크 패턴의 문제는 명백하고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 법률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크 패턴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연구에서는 자율 규제와 소프트 법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2]. 그러나 한국 학계는 플랫폼 규제에 있어서 종종 EU와 서구의 입법 사례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전통적인 윤리 기준이 붕괴되고 학문 간,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현대 한국에서는 이러한 경직된 접근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

[1] 리걸 디자인 랩. 스탠퍼드 로스쿨. <https://law.stanford.edu/organizations/pages/legal-design-lab/>

[2] 안수연, 이보경 (2023). 회색 영역 탐색하기: 정책 대응을 통한 모호한 다크 패턴 해결. 정보통신정책연구. 30(4). 31-63.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채용공고

채용분야

- 공학 분야: 컴퓨터 사이언스/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AI), 머신러닝(딥러닝) 등 관련 분야
- 사회과학 분야: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등 관련 분야

수행업무

바른ICT연구소 연구방향과 관련된 연구수행 및 국내외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과 교류 및 공동 연구

지원방법

이력서,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연구실적 목록 이메일로 제출 (barunict@barunict.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barunict.kr, 02-2123-6694 참조

바른ICT연구소 SNS를 소개합니다

바른ICT연구소는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올바른 ICT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https://youtube.com/channel/UCjfXpX92IIUfKQUmwE_BqsQ

네이버 블로그
바른ICT연구소



<https://m.blog.naver.com/barunict>

인스타그램
barunict



<https://instagram.com/barunict>

- * 본 연구소의 바른ICT뉴스레터는 국내외 우수 ICT 연구 동향 및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되는 외부 기고글(칼럼, 글로벌 뉴스 등)은 연구소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 바른ICT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news@barunict.kr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Publisher 김범수 | Editor-in-Chief 이건우
Editor 이건우 | Designer 조아라, 윤주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302동 연세·삼성학술정보관 720호
02-2123-6694 | www.barunict.kr (국문), www.barunict.org (English)

